LG하우시스, 옥수수 바닥재 출시

LG하우시스(대표 한명호)가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바닥재를 출시했다.
LG하우시스는 옥수수를 주 원료로 사용한 바닥 · 마루 소재인 <지아마루>를 출시했다.
수수 전분, 천연석, 편백나무, 진황토, 구연산 등 천연원료를 사용해 포름알데히드(Fomaldehyde) 등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, 생산에서 폐기까지 이산화탄소(CO2) 발생을 합성수지 바닥재의 50%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또 찍힘, 긁힘에 강하고 내수성을 높여 수분에 쉽게 썩거나 변형되지 않으며 열전도율이 뛰어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등 기존 마루소재가 가진 단점을 대폭 개선했다.
바닥에 붙일 때도 전문 시공교육을 받은 기술자가 무기질을 혼합한 황토풀로 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.
가격은 최근 바닥재로 널리 쓰이는 나무 강화마루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.
LG하우시스 관계자는“ 아토피 증세가 많은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을 확보하고 2011년부터 친환경 건자재 수요가 활발한 미국시장에 진출할 것 ”이라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10/10/4>